

“승차대 사람 보고도 안 세우고 땡~”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 게시판에 버스 민원 빗발쳐 “운전자 불친절·무정차 운행·난폭운전 개선 안돼”

“버스가 승차대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지나치는 건 말도 안됩니다. 너무 짜증나네요.”
강모(26)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제주시 월산마을에서 버스를 이용해 학교 통학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승차대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린 것이다.
제주도가 매년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가 지난 2017년 시행됐지만 버스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불편신고는 2018년 587건과 2019년 560건, 2020년 355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버사회사에 부과되는 과

징금도 2018년 1765만원에서 2019년 2300만원, 지난해 264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버스기사 불친절, 무정차 운행, 난폭운전 등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불편 사항이 신고되면 이용객과 버스기사 양측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잘못이 발견되면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고 건의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다”며 “경고 처분 이상 시에

는 친절 수당을 2개월간 정지하는 등의 처분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교통 관련 주요현황’에 따르면 대중교통 버스의 승수 분담률은 2016년 19.0%를 기록한 이후 2018년 14.2%, 2019년 14.6%, 2020년 14.7%에 머물고 있다. 대중교통 승수 분담률은 도내 총 승수량에서 승용차, 버스, 택시, 도보·자전거 등 각 승수부문의 승수량을 뜻한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제주 아동학대 3년새 2배 ↑

2017년 344건→2020년 536건 도,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피해아동 전문위탁가정 발굴

제주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3년새 감절가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연간 300여건 수준이었으나 최근 500여건 이상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7년 344건, 2018년 355건, 2019년 647건, 2020년 536건 등이다.
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도 2017년 528건, 2018년 603건, 2019년 959건 등 매년 큰폭의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2020년 845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수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도는 학대 아동 건수 저감을 목표로 ‘학대 아동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사전 예방·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도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기존 3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4개소로 확대한다.
또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협의해 일시보호시설을 새롭게 마련하고, 피해아동 가정보호를 위해 ‘전문위탁가정’을 발굴한다.
아울러 3월 중 경찰,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행정사가 참여하는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열어 학대피해아동 저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도 확정한다. 강다혜기자



1265kg 슈퍼한우 등장 기존 역대 최대 기록 깨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한 농장에서 최고 품질기준을 두루 갖춘 역대급 슈퍼한우가 나와 화제다. >> 사진

8일 농업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삼성한우농장에서 키워 지난 4일 도축돼 5일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의 생체 무게가 1265kg으로, 도내 역대 최고 슈퍼한우가 탄생했다. 이는 기존 도내 역대 최고 슈퍼한우(1234kg)보다 31kg 앞선 것이다.

이 슈퍼한우는 사육기간도 7개월정도 단축해 38개월만에 출하돼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슈퍼한우는 약 45개월 이상 비육 후 출하된다.

이 슈퍼한우의 도축 후 머리와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중(지육 무게)은 785kg에 달했다. 등급은 1++다.

김계삼 삼성한우농장 대표는 “서귀포시축협의 맞춤형 한우컨설팅을 받으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초록 새싹 등은 수국 8일 제주도 구좌읍 해안도로변 수국나무에 초록색 새싹이 올라와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감귤 불법유통하고 과태료는 체납 최근 5년 징수율 서귀포 46%·제주시 32% 그쳐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적체되며 현재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일부 수천만원대의 체납자로 인해 최근 5년간(2016~2020)의 과태료 징수율은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지며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상품 감귤 생산·유통 등 관련 조례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2억1579만원이다. 하지만 징수액은 9919만원(46.0%)에 그치며 체납액 1억1600만원에 견줘서 도 그 규모가 작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감귤 불법 생산·유통에 대해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해 상공촬영하고 불시 단속 등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관련 과태료 2953만원을 부과해 이 가운데 2731만원을 징수했고 2019년에는 부과액 8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하지만 이전의 연도별 체납액은 2016년 9526만원, 2017년 1544만원, 2018년 368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몇

몇의 과태료 고액 체납자들로 인해 체납액 규모가 크고, 제일 많은 1인 체납액은 8700만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해 재산 압류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도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취해 법망을 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감귤 출하시 선과장 등록제 운영에 따라 품질검사가 필수인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사원 위촉을 배제하고 있지만 배정 대응에 나서면서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제주시가 최근 5년간 감귤 불법 유통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3666만원이며, 이 중 징수액은 1183만원(32%)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1417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액은 337만원(24%)에 머물고 있다. 백금택기자

어린이집 원생 학대 장애아동도 피해 경찰 “장기간 이뤄진 듯… 정서적 학대도 의심”

“강력 처벌”... 국민청원 등장 8일 현재 2000명 이상 동의

속보=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어린이집 교사 A(20대)씨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1~3세 아동 1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중에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교사 12명, 등원하는 원아는 8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휴원 기간 제외 60일치)의 CCTV를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교사들이 장기간 관행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아동이 잠을 자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 두거나, 밥을 먹고 있는데 식판을 빼

버리는 등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와 피해자가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 학대 철거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8일 오후 2시 현재 2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독자제보 750-2231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조합원의 미래를 이끄는 빛,
KSA·한국해운조합

보다 풍요로운 내일의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변화를 넘어 희망의 빛을 따라
KSA·한국해운조합이 새롭게 나아갑니다.

본부 Tel. 02-6098-2000	부산지부 Tel. 051-660-0200	인천지부 Tel. 032-880-7512
목포지부 Tel. 061-240-6015	여수지부 Tel. 061-640-4000	제주지부 Tel. 064-720-8506
서해지부 Tel. 063-472-2700	안동지부 Tel. 061-650-6012	경남지부 Tel. 055-645-2457
울산지부 Tel. 052-261-8516	포항지부 Tel. 054-245-1812	

해상보험,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경영지원 및 조사연구, 남북해운협력지원, 사업자금대부, 석유류공급, 자재공동구매, 터미널관리, 전산매포

KSA 한국해운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평대로 379
www.theksa.or.kr